광주 올 첫 폭염주의보

어제 33.3도…광주·전남 이틀째 가마솥 더위

곳곳 열대야 밤잠 설쳐

광주에 올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틀째 광주·전남을 달궜다. 폭염은 주말·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망된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이 광주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나주·구례·순천·담양·곡성·장성·화순에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 최고 열지수 32도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구례 36도를 최고로 ▲화순 34.4도 ▲나주 34.2도 ▲광주 33.3도 등 전남 지역 모두 30도를 훌쩍 넘어, 시·도민들이 무더위에 시달렸다.

순천은 특히 낮 기온 34.8도·불쾌지수 86을 기록한데다 열지수(熱指數·습도와 기온을 고려,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수치화)까지 주의단계인 43도까지 올라 모든 시민들이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짜증스런' 하루를 보냈다.

나머지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도 주민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 80을 넘어섰다.

25일 오전 나주의 최저기온 26.1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화순·목포·여수·고흥·영암·함평지역의 하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열대야(熱帶夜)도 발생, 많은 주민이 밤잠을 설쳤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1~34도까지 올라 덥겠고, 27일 자정을 기해 고흥·보성·광양·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등 28~29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휴가철 물놀이 사고 주의보

26일 오후 2시40분께 곡성군 신기리 사방댐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이모(27·경기도 수원시)씨가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8시17분께는 목포시 대반동 유달 유원지 앞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김모(20·익산시 신용동)씨가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익사 직전 친구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방재청은 26일 "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가를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는데 물놀이 사고의 80%가량이 7~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물놀이 안전사고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주말 오후 3~6시 사이에 가장 자주 발생하고, 낮 최고기온이 32도 이상일 때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건수는 총 62건으로, 올 6월부터 현재까지는 1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뇌염 경보…방역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 뇌염 유행예측 조사결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50%를 넘어선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활동을 할 때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주의해야 하며, 특히 수해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보건소에 살충 소독 등 모기 방제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 채집비율이 경보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감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뇌염 환자는 2002년 6명, 2003년 1명, 2005년 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해수욕장 독성 해파리 '비상'

피서철을 맞은 남해안 일대 해수욕장에 독성 해파리가 출몰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태조사팀은 최근 여수 갈도와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유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가 1회에 최고 10t씩 그물에 걸려드는 등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피서객 16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치료를 받았고 송정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에서도 해파리에 쏘인 환자가 발생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해안에 밀려올 때는 지름이 40~50㎝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자라면 지름이 150㎝, 무게가 70㎏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해파리에 쏘이면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가 가렵고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쇼크로 실신할 수도 있다"며 "상처를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거나 베이킹파우더 반죽을 발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직선제 폐지한 전남대 법대

검사 출신 박휴상 교수 '서열 파괴' 학장 임명

전남대가 법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이후 검사 출신 특채 교수를 학장에 임명했다.

전남대는 26일 강정채 총장의 추천을 받은 박휴상(60·사진) 교수가 법과대학 교수회의의 동의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임기 2년의 법과대학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나온 박 교수는 지난 197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19년간 검사로 근무한 뒤 1996년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해 왔으며, 2005년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로 특채됐다.

이에 앞서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들은 1987년 학원민주화 이후 대학 자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학장 직선제를 지난 5월 스스로 철회하고, 총장에게 학장 선출권을 전격 위임했다.

대학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학장 선거로 인한 분란을 예방, 총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였다.

박 교수는 "로스쿨 인가를 위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대외 협력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우수 교원 확보, 전용 공간 및 도서관 확충, 장학기금과 발전기금 확충, 교과과정 확정, 특성화분야 기반 구축, 교수방법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로스쿨 인가를 받게 되면 고도의 전문 법 지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겸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공익인권법, 동아시아법, 보건의료법 등 전남대가 선정한 특성화 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해 특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태종기자 hwangtae@

26일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마천마을 위령비 앞에서 마을이장인 박성원(42)씨와 주민 김두열(35)씨가 14년 전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추락 참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아시아나기 추락 14년 해남 화원면 마천마을

그 땐 온주민이 구조대원 이었지…

1993년 7월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발 목포행 아시아나 항공 733편 보잉 737-500(기장 황모씨)가 해남군 화원면 마산리 마천마을 앞 운거산(雲車山·해발 324m) 중턱에 추락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이 1㎞가량 떨어진 사고현장으로 급히 달려가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승무원과 승객 66명이 끝내 숨졌고 45명은 부상을 당했다.

주민들의 헌신적인 구조 노력에 감명받은 (주)에이스 침대는 5천만원을 들여 1994년 마을회관을 건립해 기증했다. 유가족들은 66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95년 마을회관 옆에 2.5m 높이의 '위령비'(慰靈碑)를 세웠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26일 다시 찾은 마천마을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다. 당시 이 마을 유일한 가게였던 구판장(購販場·생활용품 등을 파는 마을 공동상점)은 보이지 않았다. 우물 대신 수돗물이 나왔고, 뿌연 먼지 날리던 400m 가량의 비포장 길은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다. 시신을 잠시 안치했던 화원동 초교는 화가 4명이 꾸민 작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운거산 중턱 사고 현장은 넝쿨이 에워싼 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주민들이 한두 명씩 떠나면서 당시 60여 가구 120명이던 주민 수가 이날 현재 48가구 80명으로 줄어 있었다. 위령비 역시 술 한 병과 꽃 한 송이만 앞에 놓인 채 66명의 원혼(冤魂)을 달래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주민 김수임(여·56)씨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유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주민들이나 유가족이나 외지인이나 과거 기억을 모두 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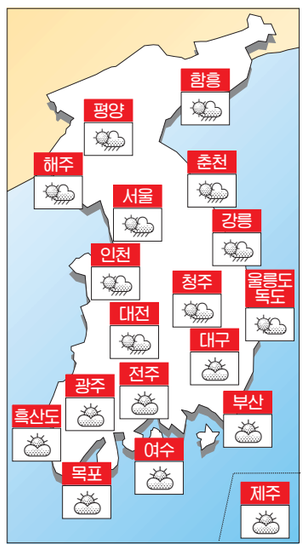
/해남=이종행기자 golee@

태양을 피하는 법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7월 27일 (음 6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6~33℃
목 포	구름 많음	25~31℃
여 수	구름 조금	26~31℃
완 도	구름 조금	25~33℃
구 례	구름 많음	26~34℃
해 남	구름 조금	24~33℃
장 흥	구름 조금	24~33℃
고 흥	구름 조금	25~34℃
순 천	구름 많음	25~34℃
영 광	구름 많음	25~32℃
진 도	구름 많음	25~33℃
전 주	구름 많음	25~33℃
남 원	구름 많음	25~34℃
흑산도	구름 조금	23~2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목 포 밀물 11:16 / — : — 썰물 05:58 / 17:23
여 수 밀물 07:01 / 20:00 썰물 01:31 / 13:11

▲해뜸 05:37 ▲해짐 19:40 ▲달뜸 17:49 ▲달짐 02: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2(목)
날 씨						
최저/최고	25/32	24/31	23/31	23/31	23/32	23/32

부실 복무 고위층 아들 등 127명 적발

연예인·유학생도 포함

서울지역 1천700여 개 병역특례업체를 상대로 석달간 진행한 병역특례 비리수사 결과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실 복무하다 적발된 사람이 고위공직자 자제와 연예인, 해외유학생 등 모두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복무한 특례자 부모들은 법조계 인사 1명과 전현직 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4명, 대기업 임원 4명, 교수 3명 등으로 사회고위층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서울 동부지검은 26일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음악활동을 한 천모(29)씨 등 가수 4명과 개그맨 손모(27)씨, 전직 차관급 공직자 아들 2명 등 부실근무한 병역특례요원 29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추가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학 후배들을 특례요원으로 받아들여 투자컨설팅 등 비지정업무에 종사시킨 배모(43)씨 등 특례업체 대표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전직 차관급 공무원의 아들 2명이 각각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2004~2005년에 귀국해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한 뒤 비지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실근무한 사실도 적발했다.

/연합뉴스